

전주 대신 나주로 몽진한 고려 현종

노성태 원장의 남도인물열전

<65> 고려 현종



현종 영정

사생아로 태어나 왕위에 오르다

34명의 고려 국왕 가운데 나주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왕은 두 분이다. 장원왕후 오씨의 아들로 나주에서 출생한 후 왕위에 오른 고려 2대 혜종과 거란의 2차 침입으로 나주로 몽진한 8대 현종이 그들이다. 고려시대 내내 나주가 전라도의 핵심 지역으로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연유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거란의 침입을 받고 나주까지 몽진한 현종은 후일 높은 평가를 받는 군주가 된다.

과거에 장원급제한 고려 최고의 유학자로 불린 최충은 '봉선홍경사 갈기비' (奉先弘慶寺 碣記碑)의 비문에서 현종의 치세를 "주나라의 '성강지치', 한나라의 '문경지치'라고 불리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주나라의 '성강지치'란 주나라 성왕과 강왕의 치세를, 한나라의 '문경지치'란 문제와 경제의 치세를 가리킨다. 즉 주나라 성왕과 강왕, 한나라의 문제와 경제의 치세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엄청난 평가다. '봉선홍경사'는 1021년(현종 12)에 창건된 절로, '봉선' (奉先)은 아버지 안종(安宗)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현종의 왕위 등극 과정은 극적이였다. 사생아로 태어나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왕이 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현종의 부친 왕욱(후일 안종)은 왕건과 5번째 부인 신성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다. 신성왕후 김씨는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큰아버지 김억령의 딸이니, 경순왕과는 4촌 간이다. 즉 현종은 고려 왕실과 신라 왕실의 핏줄을 모두 가진 고귀한 혈통의 소유자였다.



사마교비(금성관 경내)



현종이 찾았던 절 '심향사'

문제는 현종의 부친인 왕욱과 모친인 헌정왕후가 숙부와 조카라는 근친관계였고, 심지어는 몰래 정을 통해 낳은 사생아였다는 점이다.

왕욱과 헌정왕후의 불륜 관계가 알려지자, 성종은 작은아버지 왕욱을 사수현(경상남도 사천시)으로 귀양보낸다. 헌정왕후는 현종을 출산한 이듬해 사망했고, 왕욱도 현종이 5살 되던 해에 귀양지에서 병사한다. 그리고 현종을 보살펴 주던 성종마저 세상을 뜬다. 그 뒤를 이어 경종의 아들 개령군이 즉위하는데, 고려 7대 목종이다.

목종의 즉위는 현종에게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 목종이 후사가 없자, 목종의 모친 전주태후는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 전주태후에게 사생아였지만 태조 왕건의 직계 후손인 현종의 존재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현종이 머리를 깎고 양주 삼각산의 신혈사라는 절에 승려로 보내진 연유다. 신혈사에서 현종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전주태후가 보낸 궁녀들이 독이 든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고, 자객들이 호시탐탐 목숨을 노렸기 때문이다.

1009년(목종 12),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군사력을 동원해 목종을 폐위하고 태조 왕건의 적자 출신으로 유일한 대량원군을 왕으로 추대한다. 왕위 등극이 드라마틱하다. 이 대량원군이 거란의 2차 침입 당시 나주에 몽진한 현종이다.

전주 대신 나주를 선택하다

우여곡절 끝에 태어나 극적으로 왕위에 오른 현종, 그러나 그의 시련은 계속된다.



복원된 사마교

거란의 침입 때문이었다.

고려가 건국될 즈음 몽골과 만주 지방에는 거란족과 여진족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다. 거란족의 추장 아율아보기는 916년 요(遼)를 건국한 후 926년에는 발해를 멸망시킨다. 거란족이 북방의 강호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고려는 송과 화친 정책을 취하면서도 요는 금수지국(禽獸之國)이라 부르며 적대시하였다.

942년(태조 25) 요 태종이 낙타 50필을 보내오자, 태조는 사신 30명은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는 개경(개성) 만부교에서 굶겨 죽인다. 거란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제1차 침입(983)은 성종 때였고, 2·3차 침입은 현종 때였다. 1차 침입 당시 거란의 침략 의도가 송과의 관계를 끊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서희는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송과 관계를 끊는 대신, 강동 6주를 되돌려 받는다.

1010년(현종 1) 2차 침입은 강조가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즉위시킨 '강조의 정변'을 문제 삼는다. 이때 현종이 개경을 떠나 나주로 몽진한다. 18살 어린 현종의 몽진은 그야말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서경에서 고려군이 패하자, 강감찬은 남쪽으로의 피난을 권한다. 현종은 채충순과 지재문, 박석 등과 함께 금군 50여 명을 거느리고 도성을 떠난다. 그러나 몽진 중 곳곳에서 수많은 위협에 직면한다. 지방관이나 지역 토착 세력으로부터 도전과 협박을 받아 위기에 봉착한 것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호위하던 장졸마저 불온한 움직임을 보였고, 도망치는 금군도 있었다.

지방관의 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가 전주절도사 조용겸의 행동이었다.

현종이 전라도 삼례역에 이르렀을 때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현종이 탄 여가를 맞이하였는데, 관복이 아닌 야복(野服, 일상복)을 입은 상태였다. 이는 임금을 목보이는 의전이었다. 1011년 1월8일(음)자 '고려사절요'에는 '조용겸이 왕의 일행을 억류하려 했으나 지재문이 저지하다'라는 제목으로 다음처럼 실려 있다.

"삼례역에 이르자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야복을 입고 여가(御駕)를 맞이했는데, 박석이 아뢰기를, '전주는 옛 백제 땅이므로 성조(聖祖, 태조) 역시 이곳을 싫어하셨습니. 행차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 왕은 이를 옳다고 여겨 곧장 장곡역으로 가서



사마교의 흔적 '사매기'(사마교 옆)

목었다. 이날 저녁에 조용겸이 왕을 머물게 해 옆에 끼고 위세를 부리고자 전문사 이재, 순검사 최충, 전중소감 유승건과 더불어 흰 깃을 관모에 꽂고 북을 치며 떠들썩하게 나아왔는데, 지재문이 사람을 시켜 문을 닫아 걸고 굳게 지키게 하자 적들은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

위 기록은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전문사, 전중소감 등과 함께 북을 치며 왕을 억류하기 위해 위협하고 있는 기록으로, 당시 현종이 지방관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박석의 "전주는 태조의 라이벌인 견훤이 세운 도읍지이므로 안전하지 못하니 전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현종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조부인 태조 왕건의 처가 있는 나주였다. 나주는 왕건의 장수 시절 나주 호족 오다련의 딸(후일 장화왕후)과 혼인한 곳이고, 2대 왕 혜종이 태어난 곳이었다.

고려시대 나주가 어떤 곳이었는지는 1237년(고종 24)에 백제 부흥을 기치로 내건 이연년 형제의 반란군이 나주성을 포위하자, 전라도 지휘사였던 김경손이 "이 고을은 어항(御鄕)이니 다른 고을처럼 항복할 수 없다"는 말 속에 잘 녹아 있다.

고려시대 나주는 개경과 더불어 고려의 또 다른 수도, 즉 어항이었다. 현종이 지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전주 대신 나주를 최종 목적지로 선택한 연유였다.

나주에서 팔관회가 열린다

현종이 천신만고 끝에 나주에 도착한 것

은 1011(현종 2) 1월13일이였다. 현종의 기대로 나주에 머물렀던 10여 일 동안, 나주인들은 현종을 따뜻하게 환대했다.

현종의 나주 몽진은 천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현종과 얽힌 설화가 지금도 전해진다. 현종이 금성산성에 머물면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했다든지, 개경으로 돌아갈 때 네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지나간 자리에 사마교가 세워졌다는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사마교라는 다리는 금성산에서 흘러내린 하천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지만, 지금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다만 1633년(효종 4)에 세워진 사마교비가 금성관 뜰에 남아 있어, 사마교가 품은 역사를듬어볼 수 있다. 사마교비는 원래 과원동 사매기('사마교'의 음이 잘못 전하여 생긴 말인 듯함)의 한 민가 담 밑에 있었던 것을 1938년 금성관 뜰로 옮겨놓은 것이다.

비석의 앞면 위쪽에는 '사마교비'라는 명칭을 가로로 새겼고, 앞뒷면에 걸쳐 비문을 새겨 놓았는데, 훼손이 심하여 읽어내기 힘들다.

나주에서 열린 팔관회도 현종의 나주 몽진의 산물이다.

개경으로 되돌아온 현종은 나주인들의 환대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나주에서 팔관회를 열도록 명한다. 고려 팔관회는 왕실에서 주관하는 국가적 의식으로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여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이자 축제였다. 팔관회는 태조 왕건이 죽기 전 당부했던 '훈요 10조'에도 나오는 국가 중대사였다.

나주 팔관회에 관한 기록은 정도전이 남긴 '삼봉집'이 유일하다.

"현종께서 남으로 순행하여 이곳에 이르렀는데, 마침내 왕조 중흥의 공을 이루고서는 나주에서 팔관회를 하사해 개경에 견줄 수 있게 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 기록은 후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나주목' 조에도 실린다. 나주에서 행한 팔관회가 '개경에 견줄 수 있게 했다'라고 했으니, 그 위용이 짐작된다. 그러나 나주 팔관회가 언제까지 열렸는지, 언제 폐지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래 지속된 것 같지는 않다.

나주 팔관회가 열렸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심향사다. 심향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신왕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미륵전 상량문에 의하면 1789년(정조 13) 무렵까지는 '신왕사'로 불렸던 것 같다. 고려 현종이 나주에 몽진했을 때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는 절이 심향사 즉 신왕사다. '신왕사' (神皇寺)라는 이름에서 황제 황(皇)자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면, 실제로 신왕사의 대법회에 현종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경과 서경에 이어 나주에서도 왕실이 주관하는 국가적 의식인 팔관회가 개최됐음은, 나주의 위상이 대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종 대에 개편된 지방제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고려시대 지방제도는 983년(성종 2)에 설치된 10도 12목(牧)이었다. 12목 중 지금 전라도에 설치된 목은 전주·나주·승주 등 세 곳이었다.

이후 1018년(현종 9), 고려는 다시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고, 4도호부 8목 체제로 개편된다. 5도로 나뉘면서 10도 체제하에서의 강남도(전북 일대)와 해양도(전남 일대)는 합쳐져 전라도가 된다. 그리고 5도에는 핵심 거점에 8목을 설치했는데, 이때 전라도 지역에 설치된 목은 전주와 나주였다.

1018년 전주와 나주의 앞 자리를 따 전라도가 생겨난 연유다.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